

2024 새해 이렇게

이병노 담양군수

군민 체감 '다함께 행복한 자립형 경제도시' 실현



제2일반산업단지·음식 특화 농공단지·시니어 의료단지 조성 박차 생태적 문화 인프라 확충 2000만명 찾는 관광산업 르네상스 열 것

“새로운 변화에 과감히 도전하는 역동적인 군정을 펼치겠습니다.” 이병노 담양군수는 광주일보와의 신년 인터뷰에서 갑진년 새해를 맞아 한 단계 도약하는 새로운 담양 건설을 위한 비전을 제시했다.

이 군수는 “지금까지의 성과를 바탕으로 과거의 관습과 답습에서 벗어나 변화와 혁신의 새로운 담양의 문을 여는 중요한 해”라며 “군민이 체감하는 ‘다함께 행복한 자립형 경제도시’ 실현을 위해 현안 사업의 완성도를 높여겠다”는 포부와 함께 6가지 핵심 정책을 제시했다.

이 군수는 농가소득 향상을 통한 부자농촌 조성을 위해 고부가가치 신소득 작목 발굴과 스마트팜 시설 확대, 스마트 농업 관제실 운영 등 미래 농업의 기반을 다질 방침이다.

앞서 기본형 공익직불제 지원, 농어민 공익수

당 지급, 담양군농업회소 인력지원센터 일자리 연계 등 농업경쟁력 강화를 위한 맞춤형 경영안정 지원책은 농민들로부터 호평을 받으며 농업강군으로 한 걸음 더 나아가는 초석을 마련했다.

또 상공적인 귀농·귀촌을 돕는 농업사관학교 운영, 농산물 품질 고급화와 농업인들의 안정적인 판로를 확보하는 담양형 농산물 종합유통센터 건립 등 농업의 미래와 현재를 아우르는 정책을 펼치겠다고 강조했다.

이어 전국 최고의 정책 톨모델로 발돋움하고 있는 담양군의 특색 있는 복지 정책, ‘향촌복지’는 그 완성도를 높여 ‘더 살피고 찾아가는 촘촘한 담양형 향촌복지’로 나아가기 위해 행정력을 집중할 생각이다.

이 군수는 지역의 성장동력인 ‘청년이 돌아오는 담양 건설’을 위해 투자유치를 통한 일자리 만

들기와 정주 환경 개선에도 박차를 가하고 있다.

담양 제2일반산업단지와 미디어푸드 중심의 음식 특화 농공단지, 시니어 의료단지의 조성을 서두르고, 맞춤형 정책지원 등을 통해 기업하기 좋은 활력이 넘치는 경제도시를 조성하겠다는 계획이다.

여기에 개발제한구역 해제로 사업추진의 탄력을 받게 된 담양 보춘지구 개발사업은 임대주택의 비중을 늘려 저소득층, 청년, 신혼부부 등에 안정적으로 주택을 공급해 청년층 인구 유입을 유도하고자 한다.

생태적 자원과 문화적 고유성을 바탕으로 한 새로운 관광정책 패러다임을 제시해 남도문화 관광도시를 조성, 2000만 관광객이 찾는 담양 관광산업의 르네상스 시대를 열겠다는 청사진도 제시했다.

담양이 가진 생태와 문화를 담은 아간 볼거리와 즐길 거리를 확충하고, 죽녹원, 관방제림, 메타세쿼이아길 등 3대 명품 숲을 중심으로 미디어 아트와 드론쇼를 개최하는 등 모든 세대를 아우

를 수 있는 새로운 콘텐츠를 더한다는 구상이다.

군민의 생활환경 개선에도 행정력을 집중한다는 목표다.

자연과 문화가 공존하는 생활밀착형 녹지공간을 확충하고, 마을 내 유휴시설을 정비해 어디에 살아도 쾌적하고 안전한, 누구나 살고 싶은 명품 도시를 조성하고자 한다.

이와 함께 도시계획도 16개소를 개설하고 농어촌버스 단일요금제 시행, 농촌형 교통모빌(공공형버스, 행복택시) 운영 등 지역 교통 여건 개선을 통한 보편적 교통복지 실현을 위해 힘쓸 방침이다.

이병노 담양군수는 “군민 중심 찾아가는 민생 현장 간담회를 확대하고 주민총회와 지역발전토론회 등 군민의 목소리를 세세히 들을 수 있도록 소통 채널을 다양화하겠다”며 “지금까지 튼튼한 기초를 다졌던 만큼, 올해는 군민이 공감할 수 있는 실질적인 성과를 내는 것에 집중하겠다”고 강조했다.

/담양=한동훈 기자 hhdh@kwangju.co.kr

부모급여·아동양육비 증액...장성군 복지 더 촘촘해진다

새해 달라지는 복지시책 안내

효도권 지원액 늘리고 사용처 확대

장성군이 한층 촘촘해진 복지제도로 군민 행복 시대에 성큼 다가가고 있다.

장성군은 부모급여와 한부모아동양육비 인상 등 2024년 달라지는 복지제도 안내에 나섰다 밝혔다.

가장 눈길을 끄는 부분은 부모급여다. 0-11개월 영아 가정은 월 70만원에서 100만원, 12-23개월 영아를 둔 부모는 월 35만원에서 50만원으로 증액된다. 보육시설을 이용하는 가정은 보육료를 제외한 차액을 현금으로 받는다.

한부모아동양육비도 올랐다. 한부모가족 자녀 중위소득 63% 이하는 월 21만원을 지급한다. 청소년한부모 중위소득 65% 이하는 월 35만~40만원, 청소년부모 중위소득 63% 이하에는 월 25만원이 주어진다.

또 아이돌봄지원사업을 통해 자녀 2명 이상 다자녀가구에 본인부담금 10%를 추가 지원한다. 본인부담금을 소득 구간별로 군이 한 번 더 지원해 양육부담을 경감시킨다.

기초연금 지원액도 3.3%가량 인상됐다. 단독세대는 월 최대 33만 4000원, 부부 53만 4000원이 대. 기초연금 선정기준도 단독은 월 소득 213만 원, 부부 340만 8000원 이하로 완화됐다.

장성군의 대표적인 노인복지 시책인 효도권은 지난해 보건복지부 협의를 거쳐 올해부터 연 24만원으로 지원액이 늘어났다. 이비용, 목욕으로 제



군민과의 대화에 나선 김한중(가운데) 장성군수가 삼서면 주민들과 만남을 나누고 있다. <장성군 제공>

한되어 있던 사용처도 음식점, 식재료 구매 등에 사용할 수 있도록 확대한다.

고령 주민의 경제적 안정에 이바지하는 노인일자리사업은 중전 20일 근무 27만원 지급에서 13일 근무 37만 7000원으로 변경된다.

시설 분야도 주목할 만하다. 서부권 청소년의 문화활동을 지원하는 삼계면 청소년문화의집이 올해 상반기 시설설계를 마치고 하반기 착공에 들어간다.

장성읍에 건립 중인 다목적 복지회관 '에스오씨

(SOC)가족센터'는 올해 6월 준공을 앞두고 있다. 지하 1층, 지상 3층 규모에 공동육아나눔터, 장난감 도서관, 키즈카페, 다함께돌봄센터, 청소년상담센터 등이 한곳에 들어선다.

삼서면 공공목욕장 건립사업은 오는 3월부터 공사를 시작해 내년 5월 준공할 계획이다.

김한중 장성군수는 “갑진년 새해에도 ‘군민 행복’이 군정의 최우선목표”라며 “모든 군민을 위한 소외된 없는 ‘사람 중심’ 복지정책을 펼쳐 가겠다”고 말했다.

/장성=김용호 기자 yongho@kwangju.co.kr

나주시 “농어민 공익수당 신청하세요”

올 90억 규모...내달 23일까지 60만원 전액 지역화폐로 지급

나주시는 올해 90억원 규모 농어민 공익수당을 지급하기로 하고 다음 달 23일까지 수당 신청을 받는다고 15일 밝혔다.

수당 지급 신청은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할 수 있다.

농어민 공익수당은 인구 감소, 고령화 등 농어촌 문제 해결과 지속가능한 농어업 발전을 위해 지난 2020년부터 전남도와 도내 지자체가 도입한 제도다.

나주시는 농어민 공익수당으로 60만원 전액을 지역화폐인 나주시사랑상품권으로 일시 지급한다. 지류형 상품권과 더불어 나주시사랑카드 충전도 할 수 있다.

나주시는 접수 마감 후 공익수당위원회 요건 확인 등 절차를 거쳐 오는 4월 중 수당을 지급할 예

정이다.

신청 대상은 농어업 경영정보 등록 경영체의 경영주이다. 지난해 1월1일 이전부터 나주시에 실제 거주하면서 농어업에 종사한 농어민이다.

단 농어업 외 종합소득이 3700만원 이상이거나 ‘직불금 등 보조금 부정수급’, ‘공무원·공공기관 임직원’, ‘농지법·산지관리법·가축전염병 예방법·수산업법 위반에 따른 처분 이력’, ‘경영주와 실제 거주를 같이하면서 세대를 분리한 경우’ 등은 대상에서 제외된다.

나주시 관계자는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등 복지 혜택을 받는 농어민의 경우 복지급여가 감액되거나 탈락하지 않도록 꼼꼼히 확인 후 신청해 혜택을 받기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나주시는 제도 도입 첫해 농업인 1만3265명에 79억5900만원을, 2021년 1만3565명·81억3900만원, 2022년 1만4041명·84억2500만원, 지난해 1만4354명·86억1240만원의 농어민 공익수당을 지급했다. /나주=김민수 기자 kms@kwangju.co.kr

함평 국향대전, 전남도 최우수 축제 선정

5000만원 포상금·축제 홍보 지원

함평군의 대표 축제인 ‘대한민국 국향대전’이 2024년 전남도 대표 최우수 축제에 선정됐다.

전남도에서 시·군 대표 축제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매년 주최하는 이번 경연에서 함평군은 23종의 자체 국화 육종 개발, 인구정책과 연계한 국화동호회 운영, 매년 차별화된 국화조형물 연출과 주제에 맞는 프로그램 운영 등 수준 높은 콘텐츠를 선보여 높은 평가를 받았다.

이번 최우수 축제 선정을 통해 함평군은

5000만원의 예산과 함께 전문가 축제 컨설팅, 축제 홍보 등 다양한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됐다.

특히 2024~2025년 문화체육관광부 예비축제 참가 우선권 부여 등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축제로서 그 위치를 공고히 할 기회도 얻었다.

이상의 함평군은 “국향대전에 대한민국 대표 가을축제로 성장해 문화관광축제로 도약할 수 있도록 군민의 민생과 연계한 다양한 축제 프로그램 개발 등 지역 관광산업을 활성화 하겠다”고 말했다.

/함평=한수영 기자 hsy@kwangju.co.kr



강진군은 지난 2일 강진읍 강진아트홀 대공연장에서 '2024년 사무식 및 반값 강진 관광의 해'를 개최했다. <강진군 제공>

“여행비용 절반 돌려드립니다”... ‘강진 반값여행’ 전국 순회 홍보

2인 이상 최대 20만원까지 보전

“강진 반값 가족여행 홍보하러 왔습니다.” 강진군과 강진군문화관광재단이 ‘반값 강진 가족여행’과 ‘청자축제’ 홍보를 위해 광주·전남지역 주요 역사를 시작으로 제52회 강진 청자축제 전까지 매주 전국에서 순회 홍보행사를 진행한다.

2024 핵심 관광 정책인 ‘강진 반값 가족여행’과 ‘제52회 청자축제’의 성공적인 개최를 위해 진행된 이번 홍보 행사는 유동인구가 가장 많은 각

KTX 역사에서 전국 순회형으로 진행된다.

1주차 광주송정역, 목포역, 나주역, 순천역 등을 시작으로 2주차에는 서울, 충청, 전북지역을, 3주차에는 대구역, 부산역에서 스타트업 홍보 행사를 통해서 ‘반값여행’과 ‘청자축제’를 홍보할 예정이다.

강진원 강진군수는 “올해 경제 침체 예상에 따라 많은 지역에서 인축재정을 추진하고 있지만, 강진은 인축운영 보다는 반대로 관광에 과감한 투자를 통해 지역 경제를 더욱 활성화하고자 한다”면서 “2024 강진 반값 가족여행이 올해 그 핵심

사업이고 혜택이 처음으로 적용되는 제52회 강진 청자축제에 반값여행 성공에 중요한 기점이 될 예정”이라고 말했다.

한편 ‘강진 반값 가족여행’은 2인 이상 가족 단위 관광객을 대상으로 주요 축제 전·후로 여행 소비금액의 50%, 최대 20만원을 모바일 지역화폐로 지급한다. 처음으로 정책이 적용되는 ‘제52회 청자축제’ 가족여행 반값 지원은 2월1일부터 같은 달 22일까지 신청할 수 있다.

/강진=남철희 기자 chou@kwangju.co.kr

장흥 표고버섯 집단냉해...씩씩이 폐사

농가 223곳 중 120곳 피해 신고 재해보험 대상도 안돼 농민 한숨

변덕스러운 겨울 날씨에 장흥의 특산물인 표고버섯 재배에 대규모 냉해가 발생해 농가들이 피해를 호소하고 있다.

장흥군 등에 따르면 15일 현재 장흥군 내 전체 표고버섯 농가 223곳 중 120곳에서 185만 4000여 그루에 대한 냉해 피해가 신고됐다. 피해액은 7억4300만원으로 추산된다.

피해 규모가 전체 농가 절반을 넘어섰다. 중군을 접충한 지 2-3년이 된 정복(참나무 토막)에 피해가 집중된 것으로 파악됐다.

장흥군은 최근 봄과 겨울을 오간 이상기후가 냉해 피해로 이어진 것으로 보고 있다.

지난해 12월 초 지역 내 평균 기온이 10도를 웃돌면서 버섯이 돌아났다가 같은달 말 급습한 한파로 썩거나 말라 죽기에 이르렀다.

또 지역 내 대부분 표고버섯 농가가 노지 재배 방식을 따르고 있어 피해가 커진 것으로 파악됐다.

냉해 피해를 입은 버섯은 활용 방법이 많지 않고 재해보험 가입 대상도 아니기에 농가의 수심이 깊다.

장흥군 장흥표고버섯연합회장은 “봄과 가을 두 차례 표고가 돌아난다. 아직 뜯지 않은 버섯에 대해서도 추가 피해가 우려된다”면서 “산림청 등 행정 당국은 표고버섯 재해보험 가입과 관련해 ‘구체적인 자료가 없다’며 보험 가입 대상 확대를 주저하고 있다. 빠른 시일내 대책이 필요하다”고 촉구했다.

장흥군 관계자는 “이달 중으로 피해 농가에 대한 산림조합 재해대책경영자급 융자 지원에 나설 방침”이라며 “재난기준에 충족할 경우 피해 농가에 대한 국비지원도 검토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그는 “표고버섯에 대한 재해보험 기준 산정이 쉽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3월 농업정책보험금융원 차원의 현장조사가 예상된다”며 “이때 표고버섯을 보험 가입 대상으로 확대하는 방안을 건의할 방침”이라고 덧붙였다.

/장흥=김용기 기자 중부취재본부장 kykim@